

보도일시 | 2024년 10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구 거리음악회 가을 특집공연 개최

- 선선한 가을 밤, 감미로운 음악이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-



(재)고래문화재단(이사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)의 대표적 문화자원사업인 남구 거리음악회의 ‘가을 특집공연’이 오는 26일 17시 30분 삼산동 디자인거리(현대백화점 야외주차장 옆)에서 열린다.

<뚝뚝뚝뚝 페스타>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가을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.

이번 공연에는 ‘밤’, ‘저 별’ 등으로 대중에 알려진 R&B 인디가수 Dori(도리)가 출연해 가을밤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목소리를 들려 줄 예정이다.

또한, 울산에서 활동하는 래퍼 XINO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보이스와 함께 잔잔한 잔물결 같은 밴드 Wave의 감미로운 노래, 그리고 루체현악앙상블의 곡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공연도 준비했다.

고래문화재단과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협업해 운영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

재단 관계자는 “지난봄에 이어 이번에는 가을 감성을 담은 특집공연을 기획했는데, 시민들이 공연을 감상하면서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<남구 거리음악회>는 오는 11월까지 남구 곳곳에서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며, 더 자세한 공연 내용은 (재)고래문화재단 누리집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래문화재단 공연예술팀(☎ 052-226-1993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10. 22.
